

무주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포럼

추진·활성화 방안 마련·마을을 잇는 사람들 사업계획 공유

무주군은 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중간지원조직(사) 마을을 잇는 사람들(가칭) 창립 총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지역 공동체활성화협의회(회장 박희숙)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각 마을 대표들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활동보고를 듣고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가칭) 창립에 필요한 정관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포럼(주제-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방안)에서는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이현민 센터장이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사무국 김종호 사무국장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으며 백경태 도의원과 무주반딧불축제제위원회 이성만 위원장, 무주군공동체지원센터 이근석 센터장과 전북도청 농촌활력개발사업과 박훈 사무관,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김기욱 소장, 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박희숙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별 활성화가 우선돼야한다는 내용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로 가는 축제"를 정착시켰던 무주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평가를 비롯한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고산미소한우 연말 할인행사 진행

부위별 최대 20% 할인 준비

생산지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이 운영하는 고산미소한우가 한우 산지가격 하락의 흐름에 맞춰 연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완주한우협동조합은 11~12월에 지속적으로 한우 산지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 관내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한우시장의 유통모순을 타파하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한우 부위별로 최대 20%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가격거기 1등급 600g은 1만8000

원, 등심 1등급 600g은 3만6000원 등으로 저렴하게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고산미소한우에서는 연말 희식 손님을 위한 소주 할인행사와 각종 추천행사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영호 이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한우유통구조의 모순 타파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향후 한우가격의 흐름을 토대로 가격인하의 폭과 기간을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의 작은 움직임이 한우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무진장소방서-장수군 의용소방대, 사랑의 쌀 전달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중우)와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남성희회장 이광주)에서는 8일 연말을 맞이하여 장수군청에서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119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달식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자율적인 모금을 통해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사랑의 나눔으로 지역 독거노인 등 100가구를 선정하여 쌀 10kg 100포를 장수군에 전달하여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적정한 보온유지,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장수소방대 연합회 김옥녀 여성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미래사회적응 위한 생활맞춤형 교육 실시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 공유 등

무주군은 8일 미래사회적응을 위한 생활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종합수원원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무주군발전협의회(회장 권영철)가 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 관내 부녀회와 청년회 등 여성과 청년단체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인성역량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무주가 세계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부귀면 겨울 딸기 본격 출하

과실이 크고 단단·당분 함량 높고 신맛 적어

제철 과일은 자연적 기후에 따라 수확해서 먹는 과일을 말한다. 요즘에는 제철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진안 부귀면에서 진안고원 겨울철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해발 330m에 위치한 부귀면 원봉안 마을 주명환(51)씨는 지난해 진안군 최초로 딸기 재배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주명환씨는 본인이 직접 키운 딸기묘목을 정식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딸기묘목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고설식 재배가 아닌 흙에서 자란 진안고원 딸기는 실온에 1주일이상 노출되더라도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또한, 진안고원 딸기는 과실이 크고 단단하다. 특히 겨울 딸기는 봄 딸기에 비해 당분 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 인기가 높다.

원봉안 마을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지붕에 뿌려 온도를 유지하는 수막농법을 도입한다. 그 결과 난방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주명환씨는 "주위에서 다수확이 가능한 고설식 재배를 권유받는다"면서 "비록 일손이 많이 들고 더디게 가더라도 좋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토경재배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석 부귀면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딸기 주산지는 평야지에서 고랭지로 이동 중이다"면서 "진안고원 딸기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부귀를 중심으로 집단화를 이뤄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여성주차구역 시범 설치

장수군은 교통약자인 여성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보장하기 위해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경우 총주차면수의 10%이상을 여성우선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장수군 주차장조례'를 개정, 지난 7

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장애인 주차구역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등 여성운전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선은 분홍색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이와 관련, 장수군에서는 지난 11월 장수한누리전당 주차장에 8면, 장계공영터미널 옆 주차장에 5면 등 총 2개소 13면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갑수 등 증가하는 여성운전자들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택산업계
063-430-2951

특별기획

장수군 대중교통정책 우수 표창

장수군이 '대중교통정책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정책중점사업인 ▲택시감차 계획 및 실적 ▲버스 재정지원 확보 ▲교통편익증진 도입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불법주차차 과태료 징수율 등 7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장수군은 택시업계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감차를 유도해 2016년 감차 목표를 달성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어린이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각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장수군 정중현 민원과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군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힐링 치유 교실 운영

완주군은 8일 화산면 상고성 경로당에서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힐링 치유 교실'을 운영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몸 힐링 마음 힐링'이란 주제의 교실은 농한기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세라밴드 활용 근력강화운동, 식품구성 자전거를 통한 어르신 하루 영양 권장량 알기, 영양 다크게임 이벤트, 수경식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제공과 건강한 노후식생활습관, 올바른 영양식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어르신 손 유희 활동의 일환으로, 천연 가습효와 있는 수경식물 만들기를 통해 겨울철 호흡기 질환예방관리는 물론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경식물 만들기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참 좋았어요"라는 확인을 받았을 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면서 어린아이같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노인인구수가 완주군 전체인구 19.6%의 고령인구수가 추세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에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 식생활관리능력을 기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29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기자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사업 모집

무주군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37명으로 참여를 원하면 오는 14일까지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2층 회의실-324-0515)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돌봄활동을 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1~12월까지 월 30시간 근무 / 월 20만 원)에는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노인일자리 취업센터 권은성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건강과 보람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좋은 여건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최상의 만족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16명)사업과 경로당 코디네이터 파견(6명)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참여자 모집은 2월에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